

No.20151118-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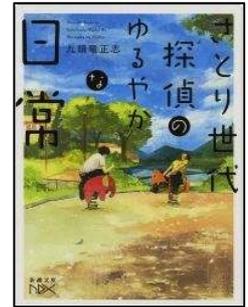
제목: 삼포세대 탐정의 느긋한 일상

저자: 쿠즈류 마사시

페이지수: 362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4월 30일



### <내용소개>

#### 자칭 열짱 명탐정 호카게인과 나, 아야타가 가벼운 대화로 푸는 일상의 수수께끼.

이야기는 특별히 목표도 없이 매일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아야타와 그의 친구 호카게인이 '명탐정 동호회'를 만들면서 시작된다. 처음엔 생각 없이 호카게인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게 된 탐정 동호회지만, 호카게인과 함께 다니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를 풀게 된다. 대학생인 둘은 아야타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교수님이 휴강을 하는 이유 같은 작은 문제에 대해서 추리를 하며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대학생활을 보낸다. 터무니 없는 추리를 하는 호카게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늘어놓는 추리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등 조금은 개그맨 콤플렉스 같은 모습도 보여지지만, 아야타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착실하게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그런 둘의 고등학교 선배의 고향인 작은 섬에 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권력 유지를 위한 섬 사람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폐쇄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으로 둘은 당황하게 되지만, 탐정 동호회의 실력을 살려 호카게인이 사건을 해결로 이끌어갈 추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무사히 섬을 빠져 나온 둘은 다시 느긋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된다.

원작의 제목에 들어있는 '사토리 세대' 라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나, 현재 20대의 나이로 자동차, 사치품, 해외여행이 관심이 없고 돈과 출세에도 욕심이 없는 일본 청년들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사토리는 '깨달음, 득도' 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로 마치 득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2-30대의 젊은이를 뜻하는 삼포세대와 비슷한 용어이다. 가까운 나라로 비슷한 세대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읽으면 어딘가 자신과 닮은 성격의 주인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대의 느낌이 물씬 나는, 실제로 주위에 있을 법한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이 소설은, 아야타의 시점으로 읽기 쉬운 가벼운 문체로 써 내려가 재미있게 금방 읽어 내려갈 만한 작품이다.

**<목차소개>**

- 제 1화: 긍정적으로
- 제 2화: 차는 급하게
- 제 3화: 방금 산 도시락을 버리는 여자
- 제 4화: 칠석 전설과 사카모토 선배의 추리
- 제 5화: 유령섬 사건
- 제 6화: 우편함 안에

**<저자소개>**

쿠즈류 마사시

1987년 후쿠이에서 태어났다. 2014년 '삼포세대 탐정의 평온한 일상'이 '제 1회 신초 미스터리 대상' 최종후보작에 올라 신초문고 nex에서 데뷔했다.

No.20151118-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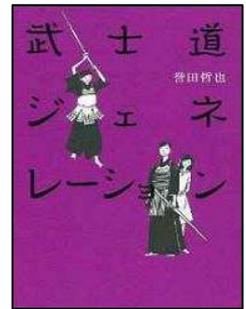
제목: 무사도 제네레이션

저자: 혼다 테츠야

페이지수: 347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7월 30일



### <내용소개>

#### 일본 검도부 소녀들을 배경으로 하는 하이틴 소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학생 두 명으로, 동급생한테 쳐 본적이 없는 엘리트 검도소녀 이소야마 카오리와 무명선수였던 니시오기 사나에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중학교 때의 대회에서 이소야마가 무명 선수 니시오기에게 머리를 맞고 우승을 놓친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어 자신을 이긴 선수를 찾기 위해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라이벌이었던 둘은 같은 검도부에 들어가 시합연습을 하면서 점점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간다. 둘은 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생이 되는데, 카오리는 검도 추천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많은 타이틀을 획득, 경찰관이 되려고 했지만 포기를 하고 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사나에는 검도의 세계에서 발을 빼고 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카오리의 도장의 사범이 쓰러지게 되어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진다. 도장을 사랑하는 카오리는 후계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사나에의 전남편에게 특훈을 받게 된다. 사나에 역시 다시 한 번 검도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도장에 나오면서도 말은 듣지 않는 유타와 특훈을 해 가면서, 동시에 카오리가 열심히 특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과 검도의 실력을 되찾아 가게 된다.

이 타이틀은 무사도 식스틴, 무사도 세븐틴, 무사도 에이틴에 이어지는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다. 일본에서는 소년만화, 소녀만화로 연재를 했으며, 시리즈의 첫 권인 '무사도 식스틴'은 인기 여배우 나루미 리코와 키타노 키이가 출연하는 영화로도 만들어 질 만큼 일본에선 인기가 많은 시리즈다. '무사도' 시리즈 중 6년만에 새로운 타이틀이 나온 것으로, 일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고등학생 전국 대회인 인터하이를 그린 '무사도 에이틴'의 엔딩으로부터 2년이 지난 대학생이 된 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남성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의 섬세한 심리묘사가 특징적인 소설이다. 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나에와 카오리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고 있다.

### <목차소개>

1. 단벌 옷 / 2. 생각 외로 해피였습니다 / 3. 크게 놀람 / 4. 이러려고 한 것은...
5. 후계자 / 6.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예감 / 7. 숨은 비법 / 8. 변한 것, 변하지 않은 것

9. 스승의 이야기 / 10. 물어봤습니다 / 11. 이방인 / 12. 이것은 의외로 뿌리 깊은 문제일지도  
13. 좋은 적수 / 14. 너무 나쁜 타이밍 / 15. 대 염회 / 16. 도망가면 안 된다  
17. 맹 특훈 / 18. 옷깃만 스쳐도..... / 19. 무용담 / 20. 아냐, 아니라고!  
21. 소꿉친구 / 22. 뭘 생각하는 거야... / 23. 구도자 / 24. 중대발표가 있습니다 / 25. 미래상

**<저자소개>**

혼다 테츠야

1969년에 태어나 가쿠슈인 대학을 졸업했다. 2002년 '요괴의 꽃'으로 제 2회 무전기 노벨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2003년 '악세스'로 제 4회 호러 서스펜스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No.20151118-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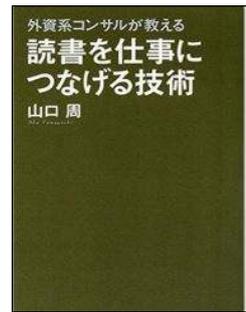
제목: 외국계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독서와 일을 연결시키는 기술

저자: 야마구치 슈

페이지수: 256

장르: 비즈니스 / 교육

출간일: 2015년 10월 17일



###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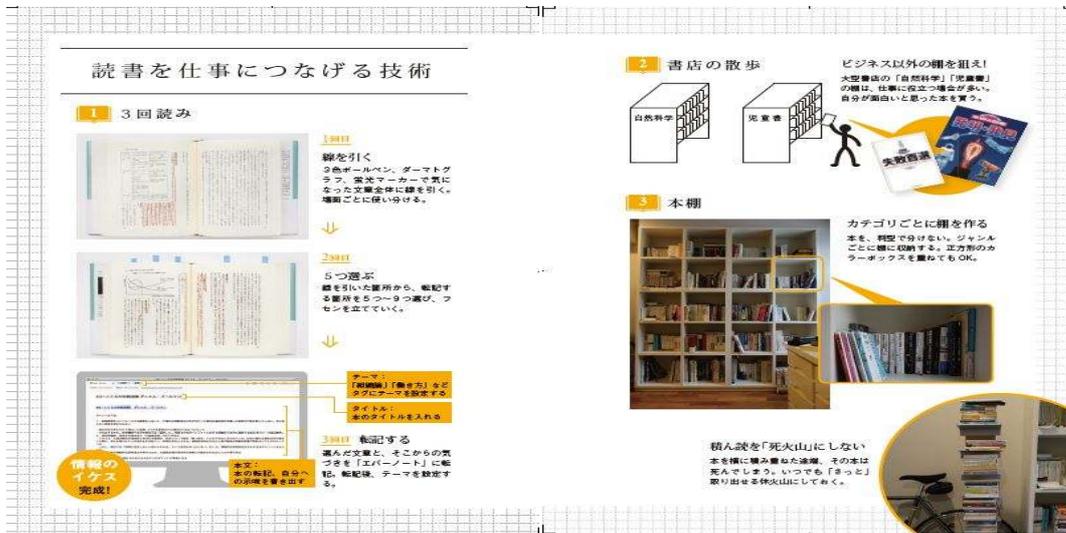
**독서는 '양'보다 '어떻게 읽어야 하나'가 중요하다.**

**독서를 취미로만이 아닌 일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즈니스서**

독서에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이 있다.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실용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독서를 자신의 이미지에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독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 되지 않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 또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경험을 터득하고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독서만한 것이 없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펴낸 책을 통해 대리 경험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자신도 삶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작정 문자만을 보는 듯이 책을 읽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타이틀은 '독서는 나름대로 꽤 하는 편인데,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감성을 직장에서도 살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독서를 일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20대에 광고 대행사에서, 30대는 외국계 전략 컨설팅회사에서 지낸 후 40대가 되어서 조직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컨설팅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30대 중반에는 글로벌비즈니스 및 여러 교육기관,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사로써 일도 했다고 한다. 이런 여러 직업을 거친 저자이지만, 저자는 직업에 관한 전문 학교 등에서 체계적으로 경영학을 배운 적은 없다고 한다. 모두 독학으로 익혀 회사에서 활용을 한 것이다. 전혀 경영과는 관계 없는 예술, 미술사를 전공으로 한 저자가 광고 대행사, 외국계 컨설팅회사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배운 지식덕분이라고 한다. 저자는 독서량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감성을 일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은 후'의 작업이라고 한다. 여러 책에서 얻은 지식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게 짜 맞추었을 때 지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방법으로는 시중에 나온 신간 비즈니스서를 읽는 것 보다는 고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라는 부분과 비즈니스서는 바로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메모를 할 필요도 없다는 부분이다. 대학교 때 배운 것들 보다는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풀어내고 있고, 가장 처음에 그림으로써 표현하고 있어 더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 실려있다.

<본문이미지>



<목차소개>

- 제 1장: '일로 연결시키는 독서' 6가지 대 원칙
- 제 2장: <비즈니스서x무엇을 읽어야하나> 비즈니스서는 '이것 만' 읽으면 된다
- 제 3장: <비즈니스서x어떻게 읽어야 하나> 고전에는 읽는 '순서'가 있다
- 제 4장: <교양서x무엇을 읽어야 하나> 좋아하는 책을 읽고 '라이벌과 차별화'한다
- 제 5장: <교양서x어떻게 읽어야 하나> 정보의 '이케스'를 만들어라
- 제 6장: '서점을 산책하는' 기술
- 제 7장: '책장'에서 독서를 일로 연결시킨다
- 특별부록: 이것만 읽으면 된다! '비즈니스서 만다라'

<저자소개>

야마구치 슈  
1970 년 도쿄에서 태어나 게이오 기주쿠 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게이오대학 대학원 문학 연구과 미학 미술사학 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덴츠, 보스턴 컨설팅 그룹, A.T. 카니 등을 거쳐 2011 년부터 조직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헤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전공은 이노베이션, 조직개발, 인재/ 리더십 육성, 커리어 개발, 새롭게 일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다. 헤이 컨설팅 그룹 디렉터로 있다.

No.20151118-004

제목: 형제 콤플렉스

저자: 오카다 타카시

페이지수: 254

장르: 심리

출간일: 2015년 09월 30일



### <내용소개>

#### 형제 콤플렉스를 낳는 원인과 극복법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해 쓴 심리서

사람은 누구나 질투를 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보다 좋은 환경의 사람을 보고 '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질투의 한 종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기 자신이 매우 비참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질투심은, 형제에 대한 질투심 일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형제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주위의 관심은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나고 자신 보다는 동생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쏟아 지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질투심이 피어나는 것이다. 자신은 찬밥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어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을 미워하게 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형제 중 어느 한 쪽의 능력이 부모에게 인정 받으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부모의 편애로 인해 형제 자매간에 적의를 품는 것을 카인 콤플렉스라고 한다. 카인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큰 아들이다. 하느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 들이고, 자신의 것에 무관심 하자 카인은 질투심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다. 이 이야기로부터 이름이 지어진 이 콤플렉스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콤플렉스 중 하나이다. 형제는 한 부모 아래서 같은 처지로 살아가고 부모 이외에 서로를 지지해 주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와 동시에 형제자매는 영원한 라이벌, 경쟁자이며 하나만 잘못되어도 애정과 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형제 자매간의 갈등 등으로 사이가 나빠져 서로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드는 일도 많다.

저자는 이러한 형제간의 콤플렉스를 테마로 이 책을 풀어나가고 있다. 형제 콤플렉스는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고 잘못되면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형제 콤플렉스 문제와 마주하여 그 안 좋은 영향을 없애고, 뛰어 넘는 것은 모든 형제 자매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 한다. 실제 생활에서 형제 자매간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서로 미워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멈춰야 하는가, 또는 대처방법 등 실제로 사용해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태어난 순서대로 성격이 좌우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경험과 지식을 가미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외동인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도 함께 설명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형제가 없는 사람들도 흥

미롭게 읽을 수 있는 한 권이다. 거기에 이해를 더 해 주기 위해 유명인들의 예와 함께 일반인들의 케이스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형제 콤플렉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장: 형제는 타인의 시작

(애정에 차가 있으면 질투가 시작된다 / 우수한 형제의 존재 / 결혼하고 변하는 형제 사이 등)

제 2장: 형제 콤플렉스와 자기애의 심리학

(자기애가 강한 부모는 공평하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 자기애가 강한 부모의 특징 등)

제 3장: 형제 콤플렉스와 애착

(부모의 애정은 평등하지 않다 / 형제싸움의 진짜 흑막 등)

제 4장: 태어난 순서의 심리학

(태어난 순서와 성격의 관계는 / 첫째의 심리학 / 쌍둥이의 성격 등)

제 5장: 형제라고 하는 망령

(브라더 콤플렉스와 시스터 콤플렉스 / 죽은 형제의 망령 / 운명을 바꾼 형제의 죽음 등)

제 6장: 형제 콤플렉스는 극복 할 수 있을까

(형제 콤플렉스의 뿌리에 있는 것 / 극복의 첫 걸음은 마주하는 것 등)

**<저자소개>**

오카다 타카시

1960년 카가와에서 태어났고 도쿄 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중퇴하고 교토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연구에 종사하면서 퍼스널리티 장애와 발달장애 치료의 최전선에서 활약, 야마가타 대학 객원교수로서 연구자, 교원의 사회적 스킬 개선이나 멘탈헬스 케어에도 몰두했다. 현재는 오카다 클리닉의 원장이자 소설가 오가사와라 케이로씨도 활동, 작품으로는 요코미조 세이시 상을 수상한 'DZ' 등이 있다. 현재 정신과 의사, 의학박사 겸 작가이다.

No.20151118-005

제목: 자신을 알기 위한 사회학 입문

저자: 이와모토 시게키

페이지수: 230

장르: 사회 /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4월 09일



### <내용소개>

#### 긴 세월 교사로 근무해온 저자가 쉽게 알려주는 사회학 입문

사회학이란 인간의 삶과 사회집단, 전체사회와 인류세계에 대해 과학적 탐구를 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의 주된 관심은 사회적 존재인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사회학은 우리, 즉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생활, 사회집단, 나아가 사회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인류사회 전체를 다루는 것에는 현실적인 불가능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작은 틀에서 사회를 분석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또한, 사회학을 공부함으로써 사회적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가장 유용한 학문이 사회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타이틀에서는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문학 등의 구체적인 예시를 섞어 사회학을 소개하고 있다. 테마도 패션의 유행, 자아 찾기, 장소와 관계성에 의해 변하는 타인과의 거리를 두는 방법, 취미에 서열이 있는가와 같은 사회학에 거부감 없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뤄지고 있어 읽는 동안 사회학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친척이나 지인이 죽었을 때의 장례식장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사회학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된 저자가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손님 대접을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친척들로부터 불신을 얻은 것에 반해서, 고모부의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한 장남이 친척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체험담을 통해 장례식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적극적인 경의를 표시해야 하는데, 사실 이는 우리 사회가 설치해 둔 암묵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본문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회학 지식을 배우는 것은 폭과 깊이가 있는 사고 틀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각 장의 마지막에 스스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제가 함께 실려 있어 사회학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의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한 힌트가 담긴 한 권이다. 사회학 강의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물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자의 재미있는 체험담에 이끌려 어느 새 사회학의 본질에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사회학의 문을 열자 - 메타 메시지
- 제 2장: '패션의 유행'을 사회학 하다 - 행위의 의미 해석을 둘러싸고
- 제 3장: "나를 찾기"와는 안녕 - 거울에 비치는 자기
- 제 4장: 장례식장도 무대!? - 연기하는 사회
- 제 5장: 러쉬일 때의 답답함 - 프록시믹스(인간 줄다리기)
- 제 6장: 색안경을 쓰고 사회를 보고있지 않아? - 만들어진 현실
- 제 7장: 취미에 서열이 있나? - 일상에 있어서 이문화와 조우
- 제 8장: 이 세상은 구경거리의 세계 - 영상을 사회학 하다
- 제 9장: 그 사랑을 한번 더 - 문학에서 사회학을 배운다
- 제 10장: 당신은 레오폰을 알고 있나? - 과학의 진보와 행복
- 제 11장: 권력을 볼 수 있나? - 권력론
- 제 12장: 지식과 데이터로 옮겨져서 - 권력론

**<저자소개>**

이와모토 시게키

고베 학원 대학 현대 사회학 교수이다. 1952년 효고에서태어났다. 간사이학원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이 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30년간에 걸쳐 초, 중,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간사이학원대학 사회학부 임기제 준교수를 거쳐 2014년부터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날려버려라 -반 학교문화의 무리들'을 저술, 반향을 일으켰다.

No.20151118-006

제목: 붓는 체질에서 마른 체질로! 림프 스트레칭

저자: 닛케이 BP

페이지수: 92

장르: 건강

출간일: 2015년 06월 17일



<내용소개>

하루 3분이면 몸이 가벼워진다!

근육을 움직이면 림프가 흘러 자연스럽게 사이즈를 다운 시켜주는 스트레칭 법

사람의 몸 속의 혈관에서는 혈액이 흐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림프관이 체내에 존재하고, 그 안에는 림프액이 실려있다. 림프액은 노폐물과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 몸에 불필요하게 된 것이나 이물질들을 흡수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하여 동맥을 통해 전신을 둘러싸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순환식이지만, 림프액은 손 발의 말단에서 시작하여 림프액이 정맥에 흘러 쇄골부분을 향해 일방통행으로 흐르고 있다. 림프액의 흐름이 정체되면 피곤해지거나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감기도 걸리기 쉬워지는 등 몸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오한, 부종,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림프 스트레칭은 그런 림프 정체 형상을 해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림프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피부와 가까운 림프관과 내장을 따라 흐르는 림프관 두 가지가 있다. 피부 가까이 있는 림프는 근육을 늘려 림프관을 넓히는 스트레칭으로 림프의 흐름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자신의 증상에 맞춰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소개 하고 있고, 사진을 통해 설명 하고 있어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이미지>





No.20151118-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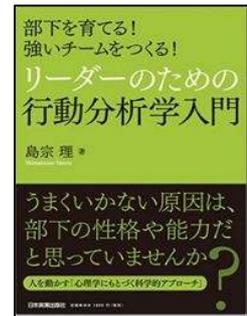
제목: 리더를 위한 행동 분석학 입문

저자: 시마무네 사토루

페이지수: 232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9월 17일



### <내용소개>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학문인 행동분석학.  
이 이론을 이용하여 조직에서 일하는 리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포인트를 해설!**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부하를 어떻게 지도 해야 하며, 어떻게 대해 주어야 부하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다. 조직의 리더에게 부하의 능력을 개발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능력개발의 목표와 평가방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능력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리더가 부하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리더의 몫이다. 리더는 부하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직접 교육시키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하의 능력을 직접 개발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글로벌한 시대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습관과 가치를 가진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 문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만족을 줄 수 있기 위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대부분 이론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막상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한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행동분석학을 이용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행동분석학이란 인간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원인을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발견,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부하의 움직임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 고민을 하는 상사들에게 왜 부하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직장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영자들을 위해 업적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을 잘 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몰두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처방전을 긍정적인 행동 매니지먼트로써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두고 긍정적인 행동 매니지먼트를 무기로 전 세계 톱 기업들을 지지하고 있는 Continuous Learning Group 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의

노하우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론과 함께 실용적인 측면으로부터 직장에서 행동 분석학을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을 배울 수 있다.

**<목차소개>**

제 1장: 기업은 행동이다

(행동 없이는 업적은 없다 / 리더의 행동이 원동력 등)

제 2장: 업적을 만드는 행동 공식

(행동은 수반성으로 변한다 / 수반성 없이는 행동도 없다 등)

제 3장: 리더십을 원동력으로

(업적은 임팩트를 / 기대를 알기 쉽게 전한다 등)

제 4장: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

(리더를 육성한다 / 더블 PBL 등)

제 5장: 자주 있는 의문과 오해

(부하를 혼내서는 안되니까? / 너무 칭찬하면 부하의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등)

**<저자소개>**

시마무네 사토루

1964 년 사이타마에서 태어나 1986 년 치바대학 문학부 행동과학과를 졸업했다. 1989 년 게이오기주쿠 대학 사회학 연구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 년, Western Michigan University 심리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Ph.D.를 취득했다. 나루토 교육대학을 거쳐 호세 대학 문학부 심리학과 교수이다. 전공은 행동분석학 이다.

No.20151118-008

제목: 예비 안내견 강아지와 지낸 358일 '퍼피워커' 일기

저자: 야마구치 하나

페이지수: 223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9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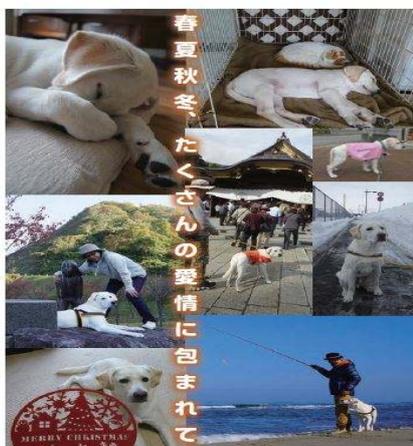
<내용소개>

단 1년 간의 가족, 웃고 울며 함께 지낸 감동의 이야기

퍼피워커란 안내견 후보인 강아지를 약 1년간 가족의 일원으로써 받아주는 봉사활동이다. 이 시기에 강아지는 '사회성'을 키우게 되고, 이 것은 맹인 안내견으로써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전철이나 자동차의 소리, 비나 눈, 사람이 많은 곳 등 인간사회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 함께 가고, 그것을 통해 인간과 생활하는 기쁨을 경험 할 수 있다.

저자는 퍼피워커 활동으로써 강아지 '양'과 만나게 되고, 양과 함께 지낸 358일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양의 활동 사진과 함께 일기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양은 저자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이 많은 관광지, 큰 소리가 나는 공항 등 여러 장소에 가서 사회와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룰을 배워 훌륭한 맹인 안내견으로써 성장하였다. 이 타이틀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귀여운 양의 사진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퍼피워커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겐 퍼피워커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한 권이다.

<본문 이미지>



今日からキミはチーム山口の一員になった。兄弟と離れて不安そうに鳴いていたのは、車中のほんの10分程度だった。腕のなかで睡ったので、シートの中に入れたら、そのまま家に着くまで寝てしまった。ほっとしながらも、やはり心臓がドキドキしていた母。



いったい、どんな暮らしがはじまるんだろう。いったい、どんないたずらをやらせてくれるんだろう。そんな不安と期待で母は緊張。体の芯が震えていた。

ヤン——キミが我が家に来てくれることになったいきさつは、のちほど。キミの名前、「ヤン」の由来ものちほどゆくりと——。

**ヤン。ようこそ、我が家へ。**

ワンツーカーニード 4月14日

委託されてまだ2日しか経っていないのに、ずっとこの家にいたかのようにリラックスしているキミ。当面のキミの目標は、指定された場所まで徘徊すること。それ以外の場所ではしないこと。それを感じることに。

※犬を入れる。持ち帰るの経験がベースのこと。



あきら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 9月13日

**今日で生後7か月。体重20.4Kg。**

病気知らずの成長。順調に成長。

晴れの日は続いているなあ。晴れ渡るの母。心も体も外へ行きたくっている。それなのにキミは……。



呑気にひなたぼっこ。まだ日差しは強いのに、呑気にひなたぼっこ。興奮ほどの暑さではないけれど、呑気にひなたぼっこ。水分蒸発してカウカツになるぜよ……。

どこかへ出かけた。出かけた！でもた。でもでもた。出かけたらすぐにウンチされるにちがいない。ダメだって言っても。

**もりっとするにちがいない。**

114 ● ● ● 少しずつ覚える、少しずつ慣れる

第3章

少しずつ覚える、  
少しずつ慣れる

秋



<목차소개>

시작하며: 맹인 안내견의 일생에 대해서

(퍼피 워커는 뭐야? / 이 책의 등장인물 / 팀 야마구치의 행동 반경)

프롤로그

제 1장: 봄- 말쑥꾸러기 '양'이 우리 집에 왔다

제 2장: 여름- 많이 놀아줘야지

제 3장: 가을- 조금씩 외우고, 조금씩 익숙해진다

제 4장: 겨울- 맹인 안내견이 된다, 를 의식하는 준비

제 5장: 양- 그리고, 등지를 떠난다는 것

끝내며: 잘 한 것 같아, 퍼피워커

**<저자소개>**

야마구치 하나

1968 년 니이가타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광고대리점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카피라이터로써 근무, 광고를 제작했다. 결혼을 계기로 퇴사를 한 후, 대학 병원과 우체국 등에서 근무했다. 이 때와 동시에 시작한 통신대학 단위 취득에 따라 인정 심리사에 합격했다. 현재 라이터로써 잡지와 서적 등에서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과 함께 강아지 1 마리와 고양이 4 마리와 야마가타현에서 생활하고 있다.

No.20151118-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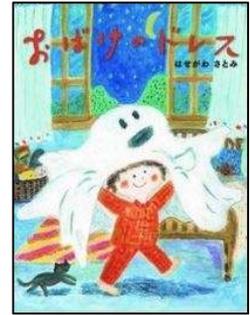
제목: 유령 드레스

저자: 하세가와 사토미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3년 10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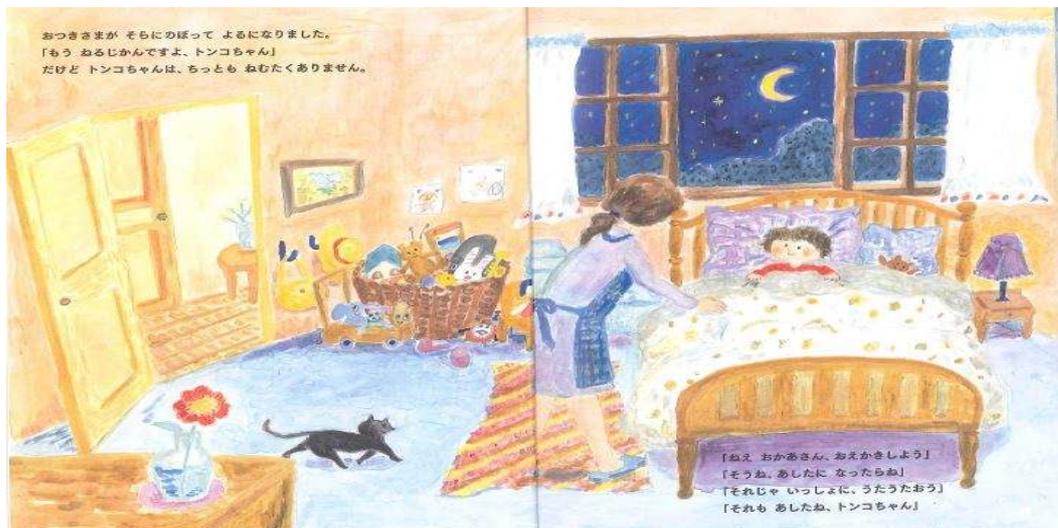
###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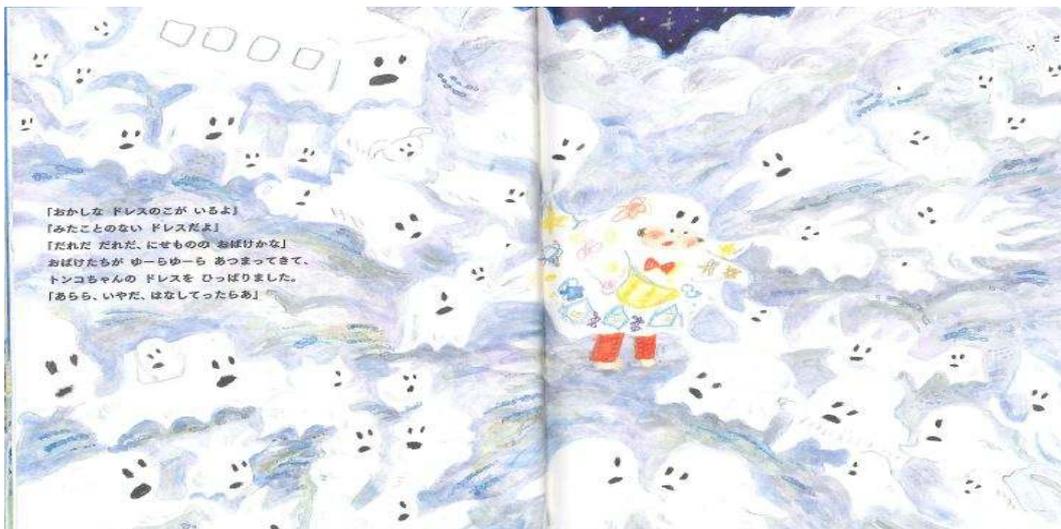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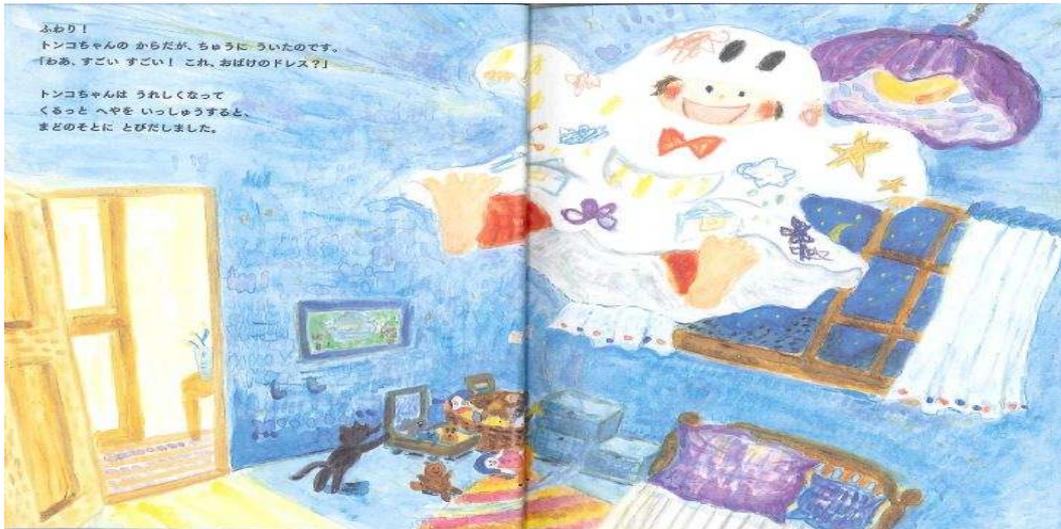
#### 폭신평신했던 유령드레스를 입고 유령들과 함께 놀아봅시다!

톤코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말뚱말뚱 두 눈을 뜨고 있으니 갑자기 창의 커튼이 흔들리더니 무언가 톤코의 방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폭신평신했던 천이었습시다. 하얀 천이 왜 이 곳에 왔을까 고민하던 톤코는 하얀 천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뒤집어 써 보니 톤코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시다. 그 것은 유령드레스였던 것입시다. 톤코는 그대로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시다. 구름에 도착하니 그 곳에는 많은 유령들이 모여있었습시다. 유령 얼음에 유령열차, 유령 개와 고양이도 있습시다. 주머니에 있던 크레파스로 구름 속에 있던 유령들에게 색을 입혀 주었습시다.形形色색의 드레스를 입게 된 유령들은 신나 했고, 톤코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돌아왔습시다.

아이와 함께 읽고, 하얀 유령을 그려주고, 톤코와 함께 유령에게 드레스를 입혀주면 아이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시다. 주위에 있는 물건을 유령으로 그려주면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해 줄 한 권입시다.

###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하세가와 사토미

1980 년 시즈오카에서 태어나 카피라이터를 거쳐 그림책 워크숍 '아토사키학원'에서 배웠다.

2012 년 제 18 회 오히사마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No.20151118-010

제목: 잠깐 보여줘요

저자: 호리카와 리마코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04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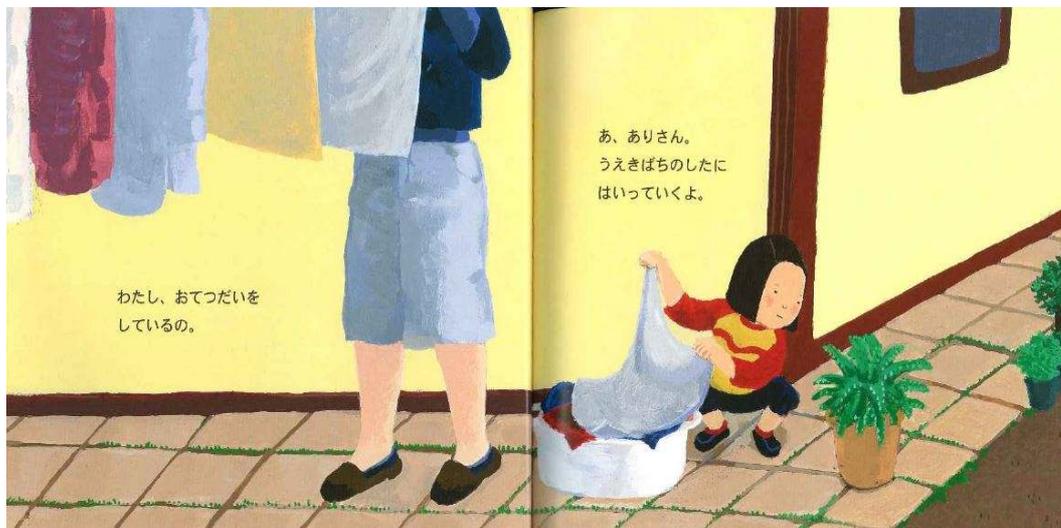
### <내용소개>

#### 정원에 있는 화분 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화분 밑에 사는 생물들은 신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를 도와 빨래를 널고 있는데, 화분 근처로 개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잠깐만 보여줘~' 하고 화분을 들자 개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개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화분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누군가 있나요? 하고 화분을 들자, 콩벌레가 나왔습니다. 콩벌레들은 당황하며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다른 화분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옆의 화분 밑에는 검은 벌레가 황급히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벌레를 쫓아가니 옆에 있던 큰 화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으쌰, 하고 큰 화분을 들어 올리니 그 곳에는 여러 벌레들이 많이 숨어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벌레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과 생태에 대해 알려주기 좋을 한 권입니다. 또, 주변의 화분 밑을 확인해 어떤 벌레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본문 이미지>





ほかの うえきばちのしたは  
 どうか？



このうえきばちのしたは

なんにも いない。



このうえきばちのしたは

あつ、くろい むしが にげていく。



すごーい！  
 いろんなのが いる。

あなたは ファスナーに  
 じてますね。

くろい むし。  
 ここに いた！  
 つのみたいな しっほ。

ここにも  
 だんごむしが いる。

まきがいきんだ！

びかびか ひかる いとを  
 ひきながら うごいてる。

ここは みみずさんの  
 ドンネルの いりくち？

ちいさい つぶつぶを  
 だいじそうにしてる。  
 もしかして、  
 あなたの たまごなの？

あしが いっぱい。  
 いち、に、さん、し。  
 あー、うごくと かぞえられないよ。

<저자소개>

호리카와 리마코

1965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을 수료했다. 도쿄, 교토 등에서 그림 작품 개인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